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I.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시점으로 변화의 중심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신의 역할을 습득하고 찾아가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다양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자의식, 자아정체감의 형성 등 심리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이러한 자아에 대한 인식과 함께 또래 집단에서의 대인관계는 청소년이 수행하여야 할 여러 발달 과업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하며 어떻게 경험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사회적 적응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시기에 대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불안과 긴장감을 경험하고 타인과의 만남을 심하게 두려워한다면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느낄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적 적응을 저해하고 성인기까지 문제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대인불안문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청소년기에는 주관적인 불편감이나 사회적 맥락의 관련성을 파악해 낼만한 인식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것이 아동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다(Morris & Masia, 1998). 또한 이러한 사회불안은 정체감 형성의 발달과업, 학업성취, 또래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등교거부, 우울 및 기타 약물남용의 문제를 나타낸다는 기존의 연구(김남재, 2000; 허재홍, 조용래, 2005; Last, Hersen, Kazdin, Orvaschel, & Perrin, 1991; Stein, Walker, & Forde, 1996; Clark, 1993)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취약성 요인으로 다양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연구되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를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하게 만들어 대인관계에 문제를 갖게 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증명된 적이 있다(서경현 2007 재인용; 허재홍, 2006; Bruch, Heimberg, Berger, & Collins, 1989; Parker, 1979). 연구결과들은 과보

호, 낮은 정서적 지지, 거부와 같은 양육태도들이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으며(Parker, 1979; Arrindell, Emnelkaup, Monsma & Brilman, 1983) 특히 아버지가 거부적인 태도를 가졌을 때 자녀가 사회불안을 느끼고 대인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었다(서경현 2007재인용; Arrindell et al., 1989; Parker, 1979). 또한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부모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신경을 쓰고 가족들이 타인과의 교제를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Bruch & Heimberg, 1994; Berger & Collins, 1989). 그러나, 일부 연구결과들은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허재홍, 2006; 오경자 & 양윤란, 2003).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불안간의 관계를 매개 또는 중재하는 변인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불안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재홍(2006)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완벽주의를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외상경험은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선숙(200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사회불안에 모두 영향력을 가지는데 아버지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독립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중 과보호요인이 자의식과 자기개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희(2006)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태도일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의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대인불안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점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 스스로를 어떻게 지각하게 하고 어떠한 정서를 경험하게 하느냐이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수치심으로서, Lewis(1992)는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내릴 때 실패의 결과로서 스스로를 평가할 때 경험하게 되는 정서가 수치심이라고 하였다. 즉 수치심은 자신이 부족하고, 결핍되었으며, 부적절하고, 무력하고, 작다고 느끼는 고통스러운 정서이며(Kaufman, 1989;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Wells & Jones, 2000), 수치심 경향성(shame-proneness)은 수치심을 얼마나 경험하기 쉬운가를

나타내는 개인의 정서적 취약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서주연, 2005 재인용). 또한 수치심은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Loader, 1998). Lewis(1992)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 계속되는 비난 등이 포함된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수치심이나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발달을 촉진한다고 하였고 특히, 부모의 훈육방법 중 신체적인 벌을 사용하거나 사랑을 거부하는 행위들은 아동의 수치심을 증가시키며, 더욱이 아동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부모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아동은 실패에 대해 점점 더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는 내적 귀인(attribution)이 발달하게 되어 수치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의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단순히 부모의 훈육 방식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동에게 주입시키는 태도나 신념 등과 같은 부모의 전반적인 행동을 통해서 증가될 수 있다고 한다(Magai & McFadden, 1995; Tompson, 1994). 즉 부모에게 애정적 양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자신을 부족하고 부적절하게 지각하게 되어 수치심을 더 쉽게 느끼게 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iers & Singer(1971)는 자신이 정한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결핍 상태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수치심을 유발하게 되고, 유기에 대한 두려움이 또한 불안 정서를 일으키게 된다고 보았다.

수치심이 불안과 관련이 있음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입증되었다(Harder, & Lewis, 1987; 류설영, 1998; 심중은, 199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수치심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대인불안 간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이 매개변인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보듯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대인불안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수치심경향성이 갖는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수치심이 사회불안과 관련된다는 기존의 단편적인 상관연구를 통합하는 모형을 통해 수치심의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고 수치심과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치료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치심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수치심 경향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치심 경향성을 통해 대인불안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대인불안

1) 대인불안의 정의와 이론

대인불안은 실제 혹은 가상의 상황에서 대인적 평가를 예견함으로써 생기는 인지적, 정서적 경험의 총체이다(Schlenker & Leary, 1982). 대인불안은 의미상으로 사회공포증(social phobia), 사회 불안(social anxiety), 대인공포, 수줍음(shyness), interpersonal anxiety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

DSM-IV에 의하면 대인불안이란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또는 수행적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보이며, 그런 상황에서 창피하고 당황스럽게 행동할까봐 두려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인불안의 정의에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네 가지(생리적,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의 반응의 조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네가지 조합에서 어느 것을 대인불안 정의에 포함하는 지는 연구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며 이런 문제가 대인불안의 개념의 정의와 방법론에서 혼란을 가져온다고 한다(김남재, 1999).

대인불안의 원인에 관한 연구로는 정신분석이론, 유전 및 생물학적 원인론, 학습이론, 인지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인불안에 대한 인지적 모형은 Schlenker와 Leary(1982)의 자기표상 모형이 대표적인데, 이에 의하면 대인불안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목표한 인상을 주어야겠다는 동기와 자기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으로부터 경험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대인불안을 정서적·인지적 열등감, 지나친 자기몰입, 부족한 자기 통제력 때문에 사람대하기를 불안해하는 증상으로 정의한다. 또한 Beck과 Emery(1985)는 장차 위협이나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취약성 도식이 불안장애의 원인이라고 하였고, 이 취약성 도식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활성화될 때 대인불안을 경험한다고 한다.

대인불안을 많은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왜곡된 인지, 부정적 자기말 등의 역기능적 인지를 많이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Glass & Furlong, 1990).

2) 청소년의 대인불안

이시형(1993)에 의하면 대인공포는 10대 초반에 발병하여 20세 전후를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20대 후반에 급격히 줄어든다고 한다. 또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나타난다(Schneier, Johnson, Hornig, Liebowitz & Weissman, 1992; Wittchen, Essau, von Zerssen, Krieg & Zaudig, 1992).

외국의 경우, 지역사회의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자기보고로 3.7%, 부모가 보고한 것으로 6.3%로 사회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이나 공포 증은 대개 청소년기까지는 좀처럼 진단이 잘 내려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어린 아동의 경우, 주관적인 불편감과 사회적 맥락의 관련성을 파악해낼만한 인지적 기술이 발달되지 못하고, 청소년기에 이르러서야 사회적인 관계에 노출될 기회가 증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Morris & Masia, 1998).

청소년기에는 사회성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개인주의 시대가 끝나고 동성끼리의 또래의식(집단)이 생겨난다. 또래 속에 있는 상대의 기분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자기를 의식하는 자기관찰이 시작된다. 대인공포가 13-16세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또 이 시기에는 부모로부터 자립해서 또래에게 의존하는 이행시기이다. 따라서 또래로부터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대 관심사이며, 이것이 대인공포적 심성을 만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Schlenker과 Leary에 의하면 대인공포가 가족이나 아주 친한 사이에 생기지 않고, 적당히 아는 사이에 잘 생긴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백남희, 2003, 재인용). 또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지점으로 적응문제가 표현되는 양상에서도 이러한 전환기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심리적 부적응이 표현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나누어 불안, 우울 등의 내적인 증상이 주가 되는 정서장애와 내적인 긴장, 갈등을 밖으로 행동화하여 표현하는 행동장애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들에게서는 이 두 유형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지만, 청소년들에게서는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증상과 함께 반항적인 행동, 혹은 비행 등의 행동장애가 뒤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홍강의, 신민섭, 1994). 아동 및 청소년기에 사회 불안을 보이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철수하고 친구관계를 잘 맺지 못하며, 학업 수행이 손상을 받거나 학교 거부증, 우울 및 기타 약물 남용 문제까지 여러 영역에서 부적응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대인불안은 사회적 적응에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아직 성인기의 사회불안에 비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불안

1)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태도는 장기간 동안 부모의 태도가 반복되면서 아동의 초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한 사회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하나의 문화 양식이다 (Fishbein, Ajzen & Belief, 1975)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 이론화한 사람은 Symonds(1949)이다. 그는 양육태도를 수용적, 거부적, 지배적, 복종적으로 분류하였다. 그의 이론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최초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헌을 하였지만 정신분석학의 임상사례에 근거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만 설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반면, Schaefer(1959)는 정상적인 부모 양육행동에 근거하여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년기에 걸쳐 형성되는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함께 연구하였다. 그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와 자율-통제의 2개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애정적-자율적 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유적, 민주적, 수용적, 협동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런 태도를 갖는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므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피한다.

둘째, 애정적-통제적인 태도는 익애형의 양육태도로써 애정을 주면서 자녀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주는 태도다. 이러한 부모는 아동의 행동범주를 결정하고 자녀의 어려움도 부모에 의해 극복된다고 믿으며,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할 때 좌절감을 느끼며, 새로운 탐색을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반응, 습득의 기회를 축소시킨다.

셋째, 자율적-적대적 태도는 방임형의 양육태도로써 자녀에게 관대하고 높은 포부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를 격려, 요구하며 항상 활동하기를 권장하고 박력과 끈기, 주의력을 집중시켜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을 말한다.

넷째, 통제적-적대적 태도는 독재적인 양육태도로서 자녀에게 관대하지 않고 자녀의 행동을 처벌 또는 심리적 통제로 규제하는 태도이다(강인숙, 2007 재인용).

Becker(1964)은 요인분석에 의해 부모의 양육행동 요소를 온정 대 적대, 억제 대 허용, 침착 대 불안이라는 3개 차원의 양육행동 요소를 조합하여 민주적 양육태도, 관대한 양육태도, 방임적 양육태도, 초조한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조직적 양육태도,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가설적인 8가지 유형을 양육태도로 분류하였다(윤기석, 2007, 재인용).

양육태도의 유형화의 대표적 이론가인 Baumrind(1966)은 자녀 양육태도를 독재적, 허용적, 권위주의적, 애정자율적 양육태도로 분류하였다. 각 차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재적 태도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독재적인 통제를 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즉각적이며 장기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종하게 하는데 때로는 체벌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자녀에게 지켜야 할 규칙과 행동규범을 설정해 놓고 절대적인 행동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그에 맞추려 한다. 부모의 말은 곧 법이며 부모의 행위가 아동을 위한 최선의 것임을 믿도록 한다. 허용적 태도는 자녀를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며 자율성을 고무한다. 이들은 자녀를 이상적으로 다루며 권위를 과시하려 들지 않는다.

자녀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자녀와 상의해서 행동에 대한 제한이나 방법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행동을 가능한 스스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통제를 피하며 외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복종하도록 권장하지 않는다.

권위적 태도는 독재적 태도와 허용적 태도의 장점을 잘 조합한 태도이다. 권위 지향적인 통제는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녀가 자율성을 갖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이성적인 설득, 명백한 권위, 또는 심리적 강화 등을 이용하여 자녀의 행동을 통제한다. 이러한 부모는 의사소통을 권장하고 부모가 행하는 방식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 주며 자녀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자녀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경청한다.

애정-자율적인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녀의 행동에 독립심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태도로, 애정적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와 신뢰감이 형성되어 남을 사랑하고 관용하는 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자유

롭고 쉽게 표현하여 개방적이고 솔직한 특징이 있다 (Mussen, 1984, 이영자, 2007 재인용). 즉, 이러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와 민주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녀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한다. 자녀에게 자유를 주지만 방임하지 않으며 자유와 함께 책임을 지게하고, 복종과 통제를 피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이러한 양육태도는 자녀를 능동적이고 독립적이며 외향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적대 감정이 없어 사회 적응능력이 높다고 한다.

적대적-자율적 양육태도는 방임형 양육태도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시에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부모의 태도이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거리감, 무관심, 냉담한 태도를 보이며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거의 없으며 태만하고 자녀를 무시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모에게서 자라는 자녀들은 부모의 애정이 결핍됨으로써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공격적이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들은 나아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정서적인 문제나 미성숙한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을 띄게 된다.

적대적-통제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관대하지 않고 신체적, 언어적 및 심리적인 체벌을 가하는 권위적, 독재적, 요구 반복적, 거부적인 양육태도이다. 결혼생활에 불만족 하거나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부모들이 많이 보이는 양육태도로 자녀를 일관성 없는 태도로 심하게 훈육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애정이 결핍됨으로써 부모에 대한 적대감과 자아에 대한 분노가 발생하며 내면화된 갈등과 고통들로 인해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학적, 퇴행적이 되기도 한다.

여러 연구를 통해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긍정적 적응과 연관된다는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났지만,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많은 연구들에서 통제의 일정한 수준 즉, 부모의 요구와 주장은 자녀가 사회적으로 수용적인 행동을 배워나가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경직되고 높은 수준의 통제는 자녀의 이탈되고 미성숙한 행동과 연관된다는 연구들이 있다(Maccoby & Martin, 1983; Baumrind, 1991). 즉 통제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는데, 통제가 일관성 있는 규제와 합리적인 설명, 규칙 실행에 대한 요구일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과잉통제와 과잉간섭, 일관성 없는 강압적 통제일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윤선숙, 2005).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는 엄격히 구분되어지지 않으며, 비록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하나의 양육방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엄격히 구분된 한 가지 입장만을 취하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 양육방법은 달라진다.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든지 간에 부모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일 경우 자녀들은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론이다(이병래, 1991; 배문주, 2004, 이영자, 2007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허묘연(200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의 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불안

사회공포증 및 사회불안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비교적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불안장애 환자의 부모특성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공포증 환자들이 부모로부터 과보호를 받았다고 보고하였으며(Terhune, 1949; Webster, 1953; Tucker, 1956) 또한 사회공포증을 보이는 사람은 부모가 자신을 과잉보호, 과잉통제 했으며, 거부적이고 돌봄이 적고, 따뜻함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rrindell, Emmelkamap, Monsma & Brilman, 1983; Parker, 1979; Heimberg, 1994; Bobels, Oosten, Muris & Smulders, 1999).

다른 불안장애와 비교했을 때 광장공포증 환자는 자신의 부모가 따뜻하지 않았다고 지각하는 데에 비해, 사회공포증 환자는 자신의 부모가 따뜻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잉통제를 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낮은 돌봄과 과보호적인 양육태도가 만족스러운 부모-자녀 유대(bond)관계의 발달을 방해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양육된 자녀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고 대인관계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Parker, 1979). 공포, 불안과 같은 사람들의 성격특징을 형성하는데 환경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격 심리학자들은 거부적이거나 과보호적인 양육방식이 수줍음과 가장 강력하게 연합된다고 제시하였다.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은 아이들이 부모를 거부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성이 큰데, 아이에게 거부적으로 대하거나 사회적 예법의 중요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 아이를 사회화되도록 고무하지 않는 양육방식등은 다른 사람의 평가적인 의견

에 예민하게 만들고 이러한 경험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일반화된 두려움으로 이끈다고 보고하였다(Allaman, Joyce & Crandell, 1972; Baumrind, 1967; Becker, 1964). 사회적 상황과 관련한 부모의 양육 행동과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Bruch(1989)는 첫째,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둘째, 아동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 셋째, 가족의 사회성 부족, 이 세가지 방식이 자녀에게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공포를 갖도록 한다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공포증을 보이는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부모가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가족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빈도가 낮았으며, 타인의 의견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수치심을 주는 것을 훈육의 도구로 삼았다고 보고하였다(Bruch & Heimberg, 1994). 사회공포증과 다른 불안 장애 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 사회공포증을 보이는 사람은 광장공포증을 보이는 사람에 비해 부모가 자신을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고립시키고,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강조했으며, 가족의 사회성이 부족했다고 지각하였다(Bruch, 1989; Bruch, Heimberg, Berger & Collins, 1989).

Caster, Inderbitzen, Hope(1999)의 연구에서는 Bruch(1989)의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 척도(Parent Toward Child-Rearing Scale; PATCS)를 수정하여 가족 환경 질문지(The Family Environment Questionnaire)를 개발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모가 보이는 양육 태도를 평가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①고립, ②타인의 평가, ③수치심, ④가족의 사회성 등 네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부모가 자신을 사회적 상황에서 고립시키고,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강조했으며, 수줍음이나 낮은 수행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가족의 사회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Bruch와 Heimberg(1994)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부모의 사회불안이 자녀가 다양하고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되며, 이는 결국 자녀가 이러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해석하였다.

부모는 자녀가 여러 사회적 상황을 접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데 (Beidel & Morris, 1995), 아동, 청소년은 부모를 따라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고, 또 비슷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점점 그 상황에 친숙해지며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를 고립시키고 사회적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자녀는 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학습할 수 없으며, 이는 더욱 이들이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진다(Daniels & Plomin, 1995).

또한 사회공포증을 가진 어머니들은 자신의 불안 때문에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을 회피하고, 따라서 아동이 이러한 사회적 공포와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모델링하여 사회경험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Daniels & Plomin, 1989).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부모는 자녀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녀에게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자녀로 하여금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Buss, 1980).

Bruch(1989)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은 아동, 청소년은 타인의 관심을 회피할 것이며, 특히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고 설명하였다.

3. 수치심과 사회불안

1) 수치심의 개념 및 이론

수치심은 개인의 행동이 아닌 ‘총체적인 자기를 검토한 결과 부족하고, 결핍되었으며, 부적절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작다고 느끼는 것으로, 전체 자기가 문제시 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Kaufman, 1989; Lewis, 1971; Tangney et al, 1992).

이는 자존감과도 유사한 개념이지만 수치심은 자존감보다 더 정서적 개념이다(장진아, 2006). 수치심은 또한 우울, 외로움, 자기비난, 고립감, 자기 분리, 완벽주의, 열등감, 실패, 좌절, 자기애적 장애 등 많은 내적 상태들과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정서이다(Wheeler, 2000). 수치심 경향성(shame-proneness)은 수치심을 얼마나 경험하기 쉬운가를 나타내는 개인의 정서적 취약성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한혜림, 2004).

수치심은 죄책감과 더불어 오래 전부터 병인론적 정서로 인식되었지만 이 두 정서의 개념이 크게 구별되지 않은 채 연구되어 왔으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주로 죄책감에 초점을 두어 저술됨으로써 그 영향으로 수치심의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으며 수치심이 죄책감과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최

근의 연구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서로 구별되는 정서라는 것과 특히 이 두 정서가 임상장면에서 나타내는 현상학적 차이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Tangney et al., 1992). 수치심과 죄책감은 모두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지만 부정적 정서의 초점이 다르며, 서로 다른 현상학적 경험을 가져온다고 한다. 전형적으로 수치심은 어색함, 노출, 비웃음, 경멸의 경험으로 기술된다. 못마땅한 행동은 못마땅한 자기(self)의 반영으로 경험되고, 자기 전체에 초점이 맞춰진다. 반면에 죄책감은 어떤 특정 행동이나 행동의 실패에 초점이 맞춰지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평가가 되고 그 결과로 자기 경멸적 경험보다는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의 느낌을 낳는다(Lewis,1971).

수치심 이론을 살펴보면, Erickson(1963, 1968)은 수치심을 자기 통제와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향문기에 생기는 특징적인 감정으로 보았다. 자신의 배설기능 조절이 안되어서 자율성과 성취감에 손상을 받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자기 능력을 회의하게 되는 데, 여기서 느끼는 향문기의 특징적 정서가 수치심이라는 것이다.

또한 Piers와 Singer(1953)은 수치심의 정신내적 입장을 강조하였는데 수치심은 자아 이상(ego ideal)과 자아(ego)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으로, 자아 이상의 기대에 도달하는 것에 실패했을 때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수치심은 자신의 결점과 관련하여 생기는 정서로, 실패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자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핍상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무의식적인 “버려짐” 위협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수치심이 야기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어로 스스로를 처벌하거나 고통받도록 하여 보상케 하려는 행동이 뒤따른다고 하였다.

Lewis(1971,1987)는 수치심을 전체 자기(entire self)가 손상되어 문제시되는 경험으로 보았다. 수치심의 가장 큰 원인이 사랑의 철회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수치심의 자기(self)는 수동적이거나 무력하며, 자신을 관찰하는 동시에 관찰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처럼 자기 기능에 있어서 분리(split) 현상이 일어나 자기 통합성이 상실된다.

수치심이 높은 개인은 실제적인 대중의 유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시선 앞에 노출되었다고 느끼게 되는데, 자기 전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보같고, 유치하고,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게 느낀다. 이에 따라 회피하고, 위축되며, 내적으로 도망가거나 숨고 싶어 한다고 한다. 이러한 수치심이 방어기제로 작용하여 모욕감과 노

여움, 분노감 등이 표출되거나 타인에게 잘못을 투사하고 비난하거나, 수치심을 보상하기 위해 오만함, 거만함, 뻔뻔스러움으로 외재화 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Kaufman(1989)은 수치심이 자기에 대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며 내면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상처라고 하였다. 이는 자신이 축소된 느낌과 함께 남에게 준비없이 보여지는 것으로 느껴지게 하는 경험으로써, 무가치감과 열등감 정서로 개인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는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Nathanson(1992)은 수치심이 개인의 특성, 독립-의존, 경쟁, 자기감, 개인적 매력, 성적 관심, 노출과 관련된 문제, 친밀함에 대한 욕구와 공포를 지각하는데 관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치심은 자기의 능력에 대한 평가, 내 힘으로는 안된다는 독립-의존의 문제, 남에게 뒤진다는 느낌, 뭔가 모자란다는 자기지각, 신체적 매력 부족, 성적 결함, 타인에게 노출되어 다 드러나 보이기 전에 도망가려는 충동, 관계가 가까워질 때 친밀해지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면서 친밀감에 대한 공포를 수반하는 경험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수치심의 방어기제로 철회, 자기 공격, 회피, 타인공격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wis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당황스러운, 창피한, 바보같은, 유치한, 후회스러운 등의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2) 수치심과 사회불안

G. Piers & M. Singer(1971)는 자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핍 상태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버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수치심을 유발하게 되고, 유기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 정서를 일으키게 된다고 보았다. Sullivan(1953b)은 불안은 그것 자체로도 인식될 뿐 아니라 당황, 수치심, 창피, 죄책감 등과 같이 특별히 유아기의 훈련과정 중에 형성된 복합적인 감정의 경험으로도 나타난다고 하면서 불안의 기원을 대인관계에 있다고 보고 수치심과의 연관성을 설명하였다. Buss(1980)은 수치심과 사회불안간의 이론적 관련성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회피 경향성이 전형적으로 수줍음의 내적 경험을 동반한다(Pilkonis, 1977)고 하였는데, 수줍음은 여러 임상 이론가들에 의해 수치심과 연결지어 설명된 개념이다(Levin, 1970, 1971; Lewis, 1971; Mayman, 1974). Turner 등(1995)의 연구에서도 사회 공포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연구한 결과, 외상적 경

험과 수줍음 요인이 사회공포증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수줍음이나 수치심의 경험이 사회불안의 인지, 행동적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경험적 연구들이 많이 존재한다(Buss, 1980; Pilkonis, 1977; Watson & Friend, 1969;).

4. 부모의 양육태도와 수치심

수치심은 양육자가 유아에게 처벌과 비판, 버려짐을 느끼게 하면 유아는 자신을 수치스러워하며 자신 속에 숨으며 타인과의 접촉을 두려워 하는 수치적 자아를 내면화하게 된다고 한다(Bradshaw, 1988). 이러한 수치심은 초기 중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반복 경험으로 발달되어 정체성으로 자리잡게 된다. 대상관계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점차 부모의 상을 내면화시켜 내적 대상을 갖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을 상을 형성한다. 따라서 아동은 자신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따라 자기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표상하게 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정적으로 표상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수치심을 느끼기 쉽다고 가정할 수 있다. 수치심이 개인의 발달과정 동안 성격으로 내면화되면, 개인은 특정 상황에서 수치심을 더욱 자주 경험하는 수치심 경향성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부정적 자기평가를 하고 만성적으로 부적절감, 무가치감, 무능력감,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Claesson et al, 2002; Kaufman, 1989; Leeming et al., 2004).

Loader(1998)은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데,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하였다. 수치심이 높은 가정에서의 부모들은 아동들에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수행을 기대하지만 아동들은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반복된 수행 실패의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부모는 실망스러운 감정이나 행동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서 아동은 자신의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 또한, 이들 부모는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치심을 사용한다. Pulakos(1996)와 Abell, Gecas(1997)의 연구에서도 역기능적인 가정환경과 수치심은 관련성이 높았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한다.

과보호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율성 발달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강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는 부모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는 아동

의 활동을 제한하려 하고 이런 과보호를 받은 아동은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런 아동들은 자신이 시도하는 것은 실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새로운 활동을 회피하고 스스로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장휘숙, 2000).

또한 거부적인 부모는 아동으로 하여금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일반화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수치심에 취약하게 한다(Allaman, Joyce, & Crandell, 1972). Gilbert, Allan과 Gross(1996)는 성인대상으로 자신의 부모의 행동을 회고해서 보고해보도록 한 결과, 성인기의 수치심은 부모의 강압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 부모의 과보호와 부관심한 양육태도(Lutwak & Ferrari, 1997) 강압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Dhandler-Holtz, 1999). 수치심이 높은 아동의 부모는 사람-초점적인 훈육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고 애정철회와 경멸이나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많이 보이며 아버지의 경우 권위를 앞세워 주장하기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osenberg, 199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치심은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생애 걸쳐 성격적 특성으로 유지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수치심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는 2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 재학생인 총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남학생 302명, 여학생 200명의 총503명의 자료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가. 수치심 경향성 척도 (Personal Feeling Questionnaire 2: PFQ-2)

심중은(1999)이 우리말로 변안한 개인 느낌 질문지(PFQ-2: Personal Feeling Questionnaire 2)를 사용하였다. PFQ-2(Harder & Zelma, 1990)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인 PFQ(Harder & Lewis, 1987)를 수정·보안한 것이다. PFQ-2는 수치심, 죄책감과 관련된 정동적 기술어를 제시하고 그것을 경험한 빈도를 Likert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성을 측정하는 10문항과 죄책감 경향성 문항 중 심중은(1999)의 요인분석 결과 수치심 경향성으로 묶인 한 문항을 추가하여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신주연(2003)의 연구에서도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었고, 사용된 11문항이 수치심이라는 단일 요인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수치심 경향성 문항에는 ‘당혹감’, ‘우스꽝스러운 느낌(ridiculous)’, ‘유치한 느낌’, ‘혐오스러운 느낌’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1로 나타났다.

나. 청소년용 대인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

청소년들이 대인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a Greca (1998)가 개발한 청소년용 대인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를 연구자가 우리말로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a Greca 와 Stone이 1993년에 개발한 SASC-R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 - Revised)을 청소년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주관적인 대인불안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SAS-A는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몇 명만 있으면 긴장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 “다른 사람이 거절할까봐 나랑 무엇인가 같이하자고 제안하기가 두렵다” 등 대인관계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문항은 총 18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이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 : 8문항),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Social Avoidance and Distress-New : 6문항)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Social Avoidance and Distress-General : 4문항)등 세가지 하위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평정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여 총 18점에서 9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불안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92로 나타났다.

다. 부모양육태도 척도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BI)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허묘연(1999)이 개발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감독(4문항), 합리적 설명(5문항), 비밀관성(4문항), 과잉기대(6문항), 과잉간섭(7문항), 학대(6문항), 방치(5문항), 애정(6문항)의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3문항으로 되어있다. 피검자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하나에 반응하게 되며 1점에서 4점으로 측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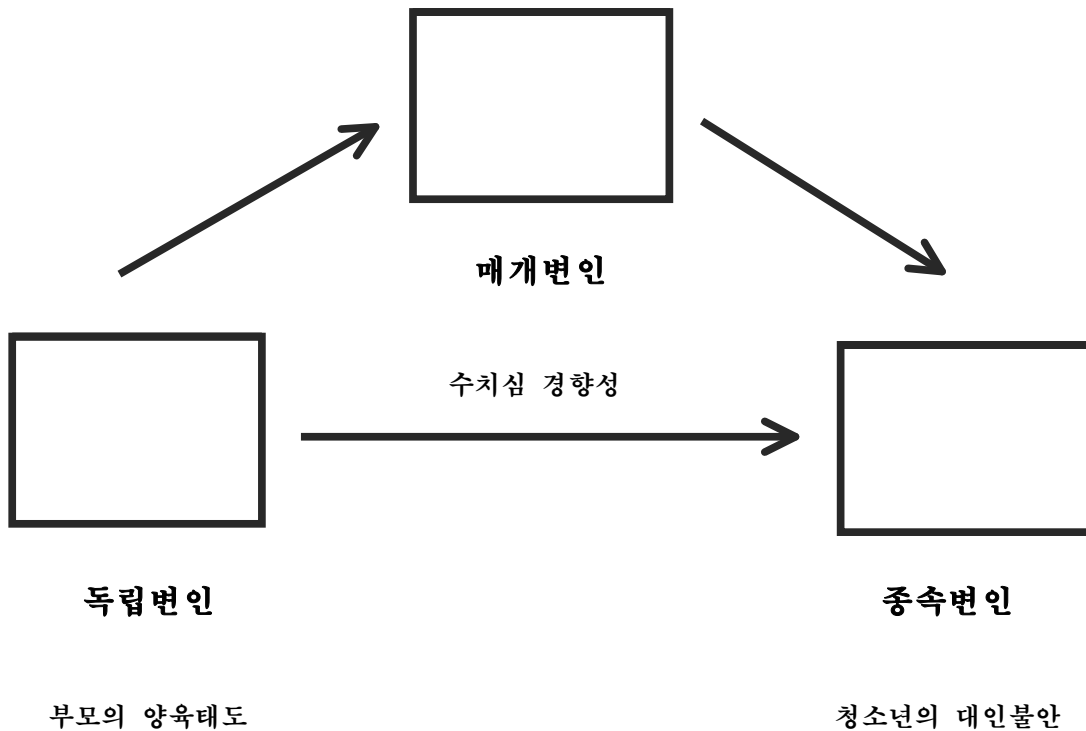
‘감독’은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합리적 설명’은 양육에 있어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갖고, 이를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비밀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서,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가지고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행동이다. ‘과잉간섭’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난 제약으로, 자녀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부모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개인적인 부분까지 간섭하는 것이다. ‘학대’는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서,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방치’는 자녀가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애정’은 자녀에게 친밀감을 나타내고 자녀를 존중하고 수용해주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65-.85 범위였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대인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되는 수치심경향성을 매개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4.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계 프로그램 SPSS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산출을 산출하였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3.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치심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수치심경향성이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6.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에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경향성의 매개효과를 알기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 적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서울에 소재한 1개의 중학교와 2개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부모유무, 부모학력, 부모직업을 조사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총 응답자 502명중 302명으로 60.2%를 차지하였고, 여학생은 200명으로 39.8%를 차지하였다. 이중 중학생은 총 21명이고 고등학생이 481명으로 고등학생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고등학생의 학년은 1학년이 105명(20.9%), 2학년이 267명(53.2%), 3학년이 109명(21.7%)의 분포를 나타냈다.

부모의 학력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경우 대졸과 고졸이 각각 200명(40.6%)로 동등한 빈도를 나타냈고,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272명(54.6%)이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다.

아버지의 직업으로는 사무직이 148명(30.3%)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고, 어머니의 직업으로는 무직이 142명(28.8%)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부모유무에 있어서는 부모모두 계심이 477명(95.05), 아버지만 계심이 9명 (1.8%), 어머니만 계심이 16명(3.2%)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분석

변인	구분	N	%
성별	남	302	60.2
	여	200	39.8

학년	중1	1	0.2
	중2	2	0.4
	중3	18	3.6
	고1	105	20.9
	고2	267	53.2
	고3	109	21.7
부모유무	부모 모두 계심	477	95.0
	아버지만 계심	9	1.8
	어머니만 계심	16	3.2
아버지 교육	대학원 이상	50	10.1
	대졸	200	40.6
	전문대 졸	16	3.2
	고졸	200	40.6
	중졸 이하	27	5.5
어머니 교육	대학원 이상	20	4.0
	대졸	151	30.3
	전문대 졸	12	2.4
	고졸	272	54.6
	중졸 이하	43	8.6
아버지 직업	전문기술관리	105	21.5
	사무직	148	30.3
	기능직	61	12.5
	서비스업	119	24.3
	단순노무직	7	1.4
	무직	3	0.6
	기타	46	9.4
어머니 직업	전문기술관리	43	8.7
	사무직	51	10.3
	기능직	29	5.9
	서비스업	108	21.9
	단순노무직	19	3.9
	무직	142	28.8
	기타	101	20.5

2.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전체 응답자의 부모양육태도, 수치심 경향성 척도, 청소년의 대인불안 척도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평균

	남(n=302)		여(n=20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감독	2.474	0.722	2.710	0.803
합리적설명	2.407	0.660	2.514	0.682
비일관성	1.889	0.569	1.709	0.583
과잉기대	2.160	0.654	1.755	0.655
과잉간섭	2.102	0.626	1.793	0.617
학대	1.361	0.515	1.264	0.496
방치	1.405	0.469	1.326	0.458
애정	2.679	0.667	2.909	0.721
대인불안	2.245	0.718	2.113	0.673
수치심경향	2.102	0.818	2.110	0.75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을 대표하는 부모양육태도 척도, 수치심 경향성 척도, 청소년 대인불안 척도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수치심경향성은 과잉간섭, 학대, 방치, 비일관성과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r=.247, p<.01; r=.201, p<.01; r=.133, p<.01, r=.254, p<.01$) 합리적 설명, 애정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r=-.095, p<.05; r=-.169, p<.01$).

또한 청소년의 대인불안 문제는 수치심 경향성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으며($r=.630, p<.01$) 애정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r=-.1, p<.05$)

3. 양육태도, 대인불안, 수치심 경향성 간의 상관

표 3. 양육태도, 대인불안, 수치심 경향성 측정치간의 상관관계

	감독	합리적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	대인불안	수치심경향성
감독	1									
합리적설명	.413(**)	1								
비일관성	-.095(*)	-.201(**)	1							
과잉기대	.059	.005	.379(**)	1						
과잉간섭	-.050	-.177(**)	.557(**)	.514(**)	1					
학대	-.095(*)	-.136(**)	.446(**)	.285(**)	.361(**)	1				
방치	-.268(**)	-.298(**)	.439(**)	.187(**)	.283(**)	.452(**)	1			
애정	.465(**)	.653(**)	-.275(**)	.031	-.231(**)	-.203(**)	-.407	1		
대인불안	.013	-.063	.227(**)	.094(*)	.160(**)	.122(**)	.199(**)	-.100(*)	1	
수치심경향성	-.029	-.095(*)	.247(**)	.017	.201(**)	.133(**)	.254(**)	-.169(**)	.630(**)	1

*p<.05, **<.01 ***p<.001

4.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표 4.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 분석

성별	독립변인	β (표준화계수)	R ²	F
남	감독	-0.018	0.081	4.311***
	합리적설명	0.113		
	비일관성	0.187*		
	과잉기대	-0.159*		
	과잉간섭	0.146*		
	학대	-0.125		
	방임	0.197*		
	애정	-0.085		
여	감독	0.174*	0.157	5.616***
	합리적설명	-0.114		
	비일관성	0.099		
	과잉기대	-0.103		
	과잉간섭	0.170		
	학대	0.084		
	방임	0.212*		
	애정	-0.007		

* p<.05 ** p<.01 *** p<.001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치심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양육태도의 각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남성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을 8.1%, 여성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을 15.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청소년의 경우, 수치심 경향성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은 비일관성($\beta=.18, p<.05$), 과잉기대($\beta=.15, p<.05$), 과잉간섭($\beta=.14, p<.05$)과 방임($\beta=.19, p<.05$)이었다. 여자의 경

우, 수치심 경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감독($\beta=.17, P<.05$)뿐이었다. 남자의 경우 방임과 비밀관성이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의 신체적, 지적인 측면에서부터 도덕적, 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태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같은 일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화를 내기도 하고 안내기도 하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자녀를 대할 경우 자녀의 수치심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수치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치심 경향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표 5. 수치심 경향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순회귀분석

성별	독립변인	β (표준화계수)	R ²	F
남	수치심	0.638***	0.405	206.043***
여	수치심	0.623***	0.386	125.912***

* $p<.05$ ** $p<.01$ *** $p<.001$

수치심 경향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수치심 경향성이 대인불안에 크게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은 청소년이 느끼는 대인불안의 40.5%($\beta=.63, p<.001$)를 설명했으며, 여자의 수치심 경향성은 여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을 38.6%($\beta=.62, p<.001$)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수치심을 더 느낄수록 대인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6.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표 6.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성별	독립변인	β (표준화계수)	R ²	F
남	감독	0.029	0.069	3.791***
	합리적설명	0.058		
	비일관성	0.271***		
	과잉기대	-0.096		
	과잉간섭	0.014		
	학대	-0.074		
	방임	0.173*		
	애정	0.009		
여	감독	0.173*	0.042	2.101*
	합리적설명	-0.121		
	비일관성	-0.026		
	과잉기대	0.008		
	과잉간섭	0.136		
	학대	0.012		
	방임	0.120		
	애정	-0.062		

* p<.05 ** p<.01 *** p<.001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대인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비일관성과 방임이었고, 비일관성이 방임보다 대인불안을 예측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영향력 있는 독립변인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만이 여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불안을 설명하는 정도는, 남자의 경우 6.9%, 여자의 경우 4.2% 였다.

7.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적용했다.

매개효과가 입증되려면 첫째,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은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명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독립변인을 추출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의 8 가지 하위요인 중 수치심 경향성과 대인불안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비일관성과 방임이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감독이었다. 따라서, 이 변인에 대해서만 Baron의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이용해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남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비일관성 변인을 예로 들어 검증이 이루어진 세부 절차를 설명하겠다. 먼저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독립변인으로 비일관성을, 종속변인으로 수치심 경향성을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비일관성을 독립변인으로, 대인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마지막 회귀 방정식에서 부모의 비일관성과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 모두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대인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모든 절차에선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사용되었다.

남자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방임과 여자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감독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이용해 검증하였다.

표 7. 부모의 비일관성이 남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표준화계수)	R ²	F	
1	독립→매개	비일관성→수치심경향	0.208***	0.040	13.514***
2	독립→종속	비일관성→대인불안	0.260***	0.064	21.743***
3	독립,매개→종속	비일관성→대인불안 수치심경향→대인불안	0.133** 0.610***	0.420	100.115***

* p<.05 ** p<.01 *** p<.001

부모의 비일관성이 남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의 비일관성은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고($\beta=0.208$, $p<.001$),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도 부모의 비일관성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beta=0.260, p<.001$). 그리고,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수치심 경향성은 남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부모의 비밀관성이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beta= 0.260, p<.001$)이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는 3단계에서는 줄어들었다($\beta=0.133, p<.05$). 그러므로,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은 부모의 비밀관성과 청소년의 대인불안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8. 부모의 방치가 남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표준화계수)	R ²	F
1	독립→매개	방치→수치심경향	0.219***	0.045	15.059***
2	독립→종속	방치→대인불안	0.205***	0.039	13.228***
3	독립,매개→종속	방치→대인불안 수치심경향→대인불안	0.069 0.623***	0.408	104.639***

* $p<.05$ ** $p<.01$ *** $p<.001$

부모의 방치가 남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았다.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부모의 방치는 남자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beta=0.219, p<.001$),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부모의 방치는 남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0.205, p<.001$).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매개 변인인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부모의 방치가 대인불안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0.205, $p<.001$)이었으나, 3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수치심 경향성이 부모의 방치와 자녀의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완전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방치 자체가 대인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수치심에 의해 매개될 때 대인불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부모의 감독이 여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표준화계수)	R ²	F	
1	독립→매개	감독→수치심경향	0.011	0.000	0.026
2	독립→종속	감독→대인불안	0.045	0.002	0.394
3	독립,매개→종속	감독→대인불안 수치심경향→대인불안	0.370 0.623***	0.384	63.008***

* p<.05 ** p<.01 *** p<.001

부모의 감독이 여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았다.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부모의 감독은 여자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도 부모의 감독은 여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의 감독이 여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못하였다.

V. 논의 및 제언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치심과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갖는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 중 비밀관성과 방임이 대인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밀관성이 방임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비밀관적인 태도와 적절한 물리적, 정서적인 지원을 주지 못하고 방임을 할수록 대인불안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 과잉간섭, 과잉기대, 방임, 비밀관성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유의한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노경선의, 2001)의 결과와 부의 방치, 부모의 돌봄, 과보호가 사회공포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김무경, 오윤희, 오강섭, 2005)와도 일치한다.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의 감독이 대인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을 알수록 대인불안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 행동과 관련하여 성차가 존재하며 성차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인임을 시사한다.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과보호와 돌봄 영역에 치중되어 온 것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밀관성과 방임, 감독을 함께 분석하여 불안에 유의미한 예측인자임을 입증하였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치심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들 가운데 수치심경향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남자청소년의 경우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 중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이 남자아동의 수치심

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서주연, 2006)의 결과와 일치한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감독과 방임이 수치심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른 지각을 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2001)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볼 때 여아는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김문정, 2003; 문경주·오경자, 2002; 신금주, 1994; 오성심·이종승, 1982; 이수연, 1985; 이정숙, 1998).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성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남자에게 더 큰 기대를 갖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러한 과잉기대나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추론해볼 수 있다.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부모의 방임이 수치심 경향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모에 의해 방임되고 정서적으로 학대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을 부족하고 결핍되었고 부적절하다고 느끼며, 그러한 부정적인 자아의식으로부터 고통받게 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Tangney, Wagner & Gramzow, 1992; Wells & Jones, 2000).

셋째,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수치심 경향성이 대인불안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 수치심경향성이 대인불안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치심이 우울과 불안등의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많은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서주연, 2006, 류설영, 1998; 심종은, 1999; Harder & Lewis, 1987; Harder & Zalma, 1990; Lutwak & Ferrari, 1997;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 요인 중 비밀관성과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수치심경향성에 의한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수치심경향성은 비밀관성과 대인불안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비밀관성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수치심경향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방임과 대인불안은 수치심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부모의 방임 자체가 대인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수치심경향성에 의해 매개될 때 대인불안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치심 경향성이 낮게 나타나면 부모의 방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인불안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수치심경향성은 부모의 감독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이 수치심경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수치심경향성은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볼 때 부모의 감독이 대인불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수치심경향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치심경향성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대인불안을 매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수치심이 학대사건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자존감의 관계를 비롯한 심리적 고통의 수준을 매개한다고 나타난 Feiring, Taska와 Lewis의 연구결과(1998)와도 일치한다. 부모의 방임이 수치심경향성의 완전 매개에 의해 대인불안이 발생된다는 것을 볼 때 수치심경향성에 초점을 두어 수치심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대인불안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경향성이 갖는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는 없었다. 이번 연구는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대인불안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보다 타당하고 정교화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수치심경향성이라는 정서적 취약요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실제적인 심리치료 개입에 기초가 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등학생 비해 중학생 표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집단의 특수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다양한 연령에서 대상을 표집하여 연구를 보다 일반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와 모로 구분하지 않고 측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버지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따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자기보고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방어적 태도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치심 경향성 척도는 수치심이 무의식적인 정서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의식되지 않고 억압, 부인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자각될 때 고통스러운 경험을 유발하는 정서이므로 답변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나 투사검사, 개인적 면담 등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치심경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직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